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의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영향요인 탐색

임애련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Analysis of latent profiles and exploration of influencing factors on interpersonal problems, emotional regulation styles,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college students

Ae-Ryon Lim

Department of Arts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Welfare, Shinhan University

요약 대인관계문제는 대학생들의 최대의 고민거리로 나타났다. 발달이론적으로도 대학생 시기의 주된 발달과업은 대인관계 형성이며, 이를 위해 심리적 접근, 정서 표현,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적 욕구 충족, 삶의 안녕감, 의사소통과 취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관계된 거부민감성, 정서조절양식은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변수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시도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집단을 분류함으로써 대학생이라는 하나의 집단 내에서 대인관계문제와 심리적 상태의 다양한 구조와 유형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변수 중심적 접근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대인관계문제와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이 특히 취약한 집단을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대학생은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의 유형에 따라 높은 사회성 집단, 배려 집단, 소심한 집단의 3개로 분류되었으며, 전공이 유형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려 집단과 소심한 집단에 대하여 접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대인관계문제에 대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는 데 논문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Interpersonal problems (IP) are a cause of major concern for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developmental theory, the main developmental task of college students is the development of IP, and this requires psychological approaches, emotional expressions, and voluntary actions. IP can negatively impact various aspects of their lives, such as autonomy, self-efficacy, well-being, communication, and employment. Rejection sensitivity (RS)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ERS) that are related to IP in college students do not show consistent patterns and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individual tendencies. Henc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latent profiles with an oriented perspective, breaking away from existing variable-oriented studies. The purpose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was to discover various structures and types of IP and psychological states within a group of college students by classifying the students into group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tendencies.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identify group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ERS and RS. As a result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colleg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High sociability, considerate, and timid.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is that it discussed the approach direction for the considerate and the timid groups who are expected to experience IP and verified the usefulness of latent profile analysis for IP.

Keywords : Interpersonal Problems, Emotional Regulation Style, Rejection Sensitivity, Latent Profile Analyses, Person-oriented Perspective

본 논문은 2023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Ae-Ryon Lim(Shinhan Univ.)

email: 13636@shinhan.ac.kr

Received August 17, 2023

Revised September 27,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1. 서론

최근 한국의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문제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대학생들의 가장 큰 상담 주제로 나타나고 있었으며[1,2], 대학생의 심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대학에 학생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Erikson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으로, 가족에게서 독립하고 자신에 대한 관심을 타인에게로 확장시켜야 한다[3]. 특히 취업을 위해 성적 뿐 아니라 인턴, 팀 프로젝트 등 타인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스펙을 쌓아야 하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 능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4].

대학생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과 대책 역시 진로영역에서 마음건강지원으로 이동하였다. 2020년까지는 대학생의 진로교육, 취·창업 위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으나[5,6], COVID-19를 계기로 대학생의 심리 문제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1년부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4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와 협력하는 대학생 마음건강지원 방안이 시행되었다[7].

대인관계란 복수의 인원이 역동적·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의 총체를 말한다. 개인이 자아를 독립하는 개별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 대학생 시기에는 자신에 대한 안정감과 더불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3차 단계로, 중요한 대상과 분리되는 상실감과 더불어 외로움, 고독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8]. 또한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환경에서 대인관계 능력을 배울 기회가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9].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근본적인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자율성·유능감·관계적 욕구 충족 문제[10], 삶의 안녕감[11], 의사소통 능력[12]에 문제가 있으며, 자신이 사랑 뿐 아니라 수용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지 못함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13].

Colarusso의 3차 개별화 단계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8].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심리적 접근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지 않는 동시에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인관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조절하는 것은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은 개인의 환경과 특성

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능동적 양식, 회피불안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15,16].

능동적 양식은 자신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노력인 동시에 분노,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회피불안적 양식은 문제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주의를 분산 시킴으로써 수치를 경감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전략이다. 지지추구적 양식은 주변인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구하거나 정서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수행되는 정서 조절의 전략으로, 슬픔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15].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주어지기 보다는 능동적·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타인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Feldman & Downey는 이를 거부민감성으로 설명하면서, 거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과잉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이라고 하였다[17].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수준이 높고, 애매한 반응이나 사소한 단서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여 자기침묵, 관계철회, 회피와 같은 수동적인 반응에서부터 분노, 적대감 등의 역기능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18,19].

거부민감성은 거부불안과 수용기대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20]. 거부불안이 높은 개인은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애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인지과정을 거치기보다 무의식적으로 격렬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19]. 반대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짐작하여 감정을 억제하거나 과도한 희생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21]. 거부민감성에서의 수용기대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에 대한 기대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측정된 점수를 역산하여 거절당할 것이라는 예상 정도를 통해 거부민감성을 평가하고 있다[22].

대학생들의 거부민감성, 정서조절양식, 대인관계문제는 보편적인 수준을 보이지 않는다. 즉, 개인의 성향에 따라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도 존재하는 반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학생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변수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Latent Profile Analyses)을 통하여 거부민감성, 정서조절양식, 대인관계문제는 대학생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변수 중심적 연구에서는 대학

생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차이를 고찰하였다면, 사람 중심적 연구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집단을 분류함으로써 대학생이라는 하나의 집단 내에서 대인관계문제와 심리적 상태의 다양한 구조와 유형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람 중심적 연구에 대한 이론적 핵심은 개인의 발달과 연관된 구성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대상의 꾸준한 발달을 유도하는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다. 사람 중심적 접근방법은 변수 중심적 접근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대인관계문제와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이 특히 취약한 집단을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 이를 위해 대학생 중,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공통 특성을 파악하는 형태로 연구가 수행된다. 즉,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의 수준 자체와 영향 요인으로 인한 발달적 결과에서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집단이 존재할 것을 예상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집단이 외향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나 반복적인 패턴을 이해하여 공통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정서조절양식,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대학생의 성향에 따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비교적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한 개입 현장에서의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을 분류했을 때, 집단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성별, 학년, 전공은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S대학교 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공은 사회과학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보건계열 등 다양한 전공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Category	N	%
Grade	1st grade	94	31.5
	2nd grade	74	24.8
	3rd grade	81	27.2
	4th grade	49	16.4
Gender	Male	88	29.5
	Female	210	70.5
Major	Social Sciences	60	20.1
	Global Business	74	24.8
	Biotechnology and Health	85	28.5
	Science and Technology Convergence	29	9.7
	Design and Art	40	13.4
	Nursing	10	3.4

2.2 연구도구

2.2.1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Bear, Rosenberg, Ureno, & Villasenor[24]가 개발하고 홍상환, 조용래, 권정혜, 박은영, 김영환, 진유경[25]이 한국 성인과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타당화 단축화한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KIIP-SC)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8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통제지배 0.718, 자기중심성 0.762, 냉담 0.851, 사회적 억제 0.872, 비주장성 0.897, 과순응성 0.845, 자기희생 0.762, 과관여 0.755로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2.2.2 정서조절양식

정서조절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윤석빈[15]이 개발한 정서조절 양식 2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능동적 양식, 회피불안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설계하여 응답자가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서조절양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능동적 양식 0.832, 회피불안적 양식 0.796, 지지추구적 양식 0.906으로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2.2.3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 & Feldman[20]이 개발하고 이복동[26]이 사용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거부불안, 수용기대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마다 불안과 기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6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양극단 쪽으로 응답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편향이 우려되어[27] 5점 척도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거부불안 0.945, 수용기대 0.912로 신뢰도는 양호하다 판단되었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함에 따른 AIC, BIC, ABIC 값을 확인하였다. 해당 지수는 값이 작아질수록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하지만[28] 모형이 복잡할수록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분류의 질을 고려하기 위하여 Entropy값을 고려하였다. Entropy값은 각 개인이 정확하게 분류될수록 1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모두 틀리게 분류될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0.8 이상인 경우 분류가 잘 되었다고 판단한다[29]. 동시에 모형 적합도의 향상 정도가 유의한지 검증하는 LMRT와 BLRT 값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Mplus 7.4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잠재프로파일 분류

정보지수인 AIC, BIC, ABIC값은 모두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Entropy값은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BLRT값은 잠재프로파일 수가 4개일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전 모형에 비해 모형의 적합도 향상 정도가 유의한지 검증하는 지수인 LMRT값은 잠재프로파일 수가 4개일 때 p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의 잠재프로파일을 가진 모형보다는 3개의 잠재프로파일을 가진 모형이 주어진 자료를 더 적합하게 분류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조건을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 수는 3개로 결정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fitness according to the number of latent profiles

Index	Number of Latent Profiles		
	2	3	4
AIC	7930.372	7690.735	7586.338
BIC	8078.256	7890.378	7837.741
ABIC	7951.401	7719.124	7622.088
Entropy	.880	.887	.900
LMRT	.000	.006	.387
BLRT	.000	.000	.000

LMRT, BLRT are presented as p-value.

3.2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의 잠재프로파일

본 연구대상인 대학생 298명을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대인관계문제가 제일 적으면서 지지추구적 양식과 능동적 양식이 가장 높은 반면 회피불안적 양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더불어 거부불안은 세 가지 프로파일 중 가장 낮으면서 수용기대는 가장 높게 나타난다. 즉, 첫 번째 집단은 활발함과 사교성이 높고, 대인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에 첫 번째 집단은 '높은 사회성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 분석대상의 39.6%가 속해있고, 세 가지 프로파일 중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 모두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높은 사회성 집단'과 비교했을 때, 냉담과 사회억제가 높은 수준을 보인다. 즉, 모든 변수에서 크게 치우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자기중심성도 세 집단 중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관여, 냉담, 사회억제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이는 타인의 관심을 필요로 하나, 자기표현에 서투르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눈치를 보는 경향이 강한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두 번째 집단은 '배려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지지추구적양식과 능동적 양식이 제일 낮은 반면 회피불안적 양식은 제일 높다. 또한 거부불안은 세 가지 프로파일 중 가장 높은 반면 수용기대는 가장 낮게 나타난다.

즉,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고,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거기에 책임지려 하는 자기희생 성향이 높게 나타나며, 타인에 대해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거나 수줍음을 보이는 특성으로 발현되며, 타인에게 거부당하는 불안이 세 집단 중 가장 높고 수용기대는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세 번째 집단은 '소심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 Average by latent profile

Index	High sociability n=91(30.5%)		Consideration n=118(39.6%)		Timidity n=89(29.9%)	
	Mean	S.E.	Mean	S.E.	Mean	S.E.
IP						
HI	1.561	0.059	2.434	0.075	3.586	0.069
JK	1.707	0.070	2.441	0.091	3.314	0.073
LM	2.346	0.094	2.878	0.104	3.423	0.079
PA	1.695	0.070	1.926	0.062	1.995	0.071
BC	1.506	0.061	1.971	0.058	2.087	0.068
NO	2.158	0.101	2.312	0.086	2.534	0.089
DE	1.422	0.058	2.244	0.074	3.003	0.107
FG	1.491	0.055	2.375	0.066	3.346	0.091
RS						
AnE	1.758	0.059	2.436	0.078	3.084	0.086
AcE	4.019	0.055	3.601	0.038	3.275	0.046
ERS						
SSS	4.009	0.090	3.555	0.100	3.213	0.114
AS	3.795	0.065	3.401	0.071	2.937	0.078
ADS	2.850	0.085	3.089	0.079	3.352	0.078
RS						
AnE	1.758	0.059	2.436	0.078	3.084	0.086
AcE	4.019	0.055	3.601	0.038	3.275	0.046

IP: Interpersonal problems, HI: Nonassertive, JK: Overly accommodating, LM: Self-sacrificing, PA: Domineering, BC: Vindictive, NO: Intrusive, DE: Cold, FG: Socially inhibited, ER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SSS: Support-seeking style, AS: Active style, ADS: Avoidant/distractive style, RS: Rejection sensitivity, AnE: Anxiously expectation, AcE: Acceptance expec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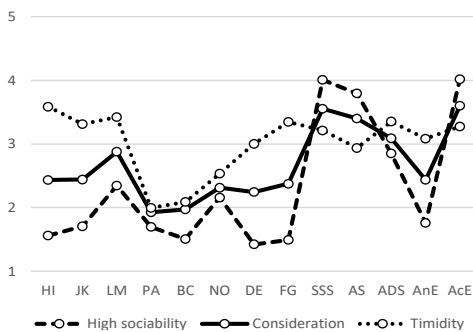


Fig. 1. Comparison of latent profiles

3.3 잠재프로파일의 영향요인 검증

위의 분류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잠재프로파일의 분류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Class1(높은 사회성 집단)에 비해 Class2(배려 집단)에 속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단과대학 중 과학기술융합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Exp(B)=0.190, $p<.01$). 즉, 과학기술융합대학에 속한 학생은 간호대학 및 바이오생태융합대학에 속한 학생에 비해 Class2(배려 집단)에 속할 승산이 감소하여 과학기술융합대학에 속한 학생은 Class2(배려 집단)에 비해 Class1(높은 사회성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Class1(높은 사회성 집단)에 비해 Class3(소심한 집단)에 속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단과대학 중 글로벌비즈니스대학(Exp(B)=0.317, $p<.01$), 과학기술융합대학(Exp(B)=0.201, $p<.01$), 디자인예술대학(Exp(B)=0.319,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 및 바이오생태융합대학에 속한 학생에 비해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디자인예술대학에 속한 학생들은 Class3(소심한 집단)에 비해 Class1(높은 사회성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Table 4.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Variable	Class1 vs Class2			Class1 vs Class3		
	B	S.E.	Exp(B)	B	S.E.	Exp(B)
Gender						
Female	-0.304	0.340	0.738	0.187	0.381	1.206
Grade						
2nd.	0.096	0.386	1.101	-0.529	0.421	0.589
3rd.	-0.011	0.379	0.989	-0.240	0.407	0.787
4th.	0.964	0.497	2.623	0.915	0.514	2.496
Major						
SS	-0.213	0.439	0.808	-0.342	0.456	0.710
GB	-0.657	0.398	0.518	-1.148	0.434	0.317**
STC	-1.659	0.558	0.190**	-1.604	0.586	0.201**
DA	-0.416	0.471	0.660	-1.141	0.532	0.319*

*Reference: Gender(Male), Grade(1st.),

Major(Nursing/Biotechnology and Health)

**SS: Social Sciences, GB: Global Business, STC: Science and Technology Convergence, DA: Design and Art, GE: General electiv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람 중심적 접근(Person-Oriented Perspective)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정서

조절양식, 거부민감성을 분류하였을 때, 잠재프로파일은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확인하고, 대학생의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S대학교 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척도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해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이 몇 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해 잠재프로파일의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에 대한 잠재프로파일은 높은 사회성 집단, 배려 집단, 소심한 집단의 3개로 분류되었다. 이는 홍석기[30]의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했을 때, 유능, 평균, 소진의 3집단으로 분류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소심한 집단은 대인관계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으로, 비주장성과 자기희생, 냉담, 사회역제 수준이 두드러지게 높다. 즉, 소심한 집단의 대학생들은 타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 혹은 권리를 주장,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1]. 이는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순종적이고 타인의 욕구를 책임지는 방법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32]. 동시에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음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부불안과도 연결이 된다.

따라서 애착과도 관계가 있는 거부불안을 줄이기 위해 멘토 혹은 또래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 경험을 통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체험하도록 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타인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이 소심한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정서조절양식에 있어서 지지추구적 양식과 능동적 양식에 비해 회피불안적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타인의 조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배려 집단은 소심한 집단에 비해서는 자기희생이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높은 사회성 집단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즉, 배려 집단 역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적절한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대

인관계문제에 있어 자기희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경향을 인지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배려 집단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려는 성향이 높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타인과 자신 간의 경계선을 설정해주는 것이 배려 집단에 대한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바이오생태융합대학과 간호대학에 소속된 대학생들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과학기술융합대학에 소속된 대학생들이 배려 집단보다 높은 사회성 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디자인예술대학에 소속된 대학생들이 소심한 집단보다 높은 사회성 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역으로 바이오생태융합대학과 간호대학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문제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간호대학은 이론과 실습의 병행으로 학생들이 높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본인의 희망보다는 취업을 위해서나 주변의 권유로 입학하여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33], 보건대학에 해당하는 바이오생태융합대학 또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분석한 연구[34]에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거절을 못하며, 자신의 주장이나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반면 내면에 무기력감과 분노를 내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S대학에서도 해당 전공자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여, 간호대학 대학생에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 간호하기' 과정을 제공하여 대인관계와 심리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소심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생태융합대학 전공자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혼란은 자아와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이후 생애에서도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직장생활을 포함한 사회적 영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강한 소통 방법과 대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사람 중심적 접근 방법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대학생이라는 동질 집단에서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대학생 내에서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양식, 거부민감성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이질적인 집단이 있음을 고려하는 사람 중심적 접근 방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사람 중심적 접근을 적용한 자료의 축적은 다양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학생의 문제해결 지원 방안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잠재프로파일과 예측요인 분석은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대학생의 유형에 대한 통계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문제가 예상되는 집단을 확인하고, 문제 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을 도출하여 해당 전공에 대한 개입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표본에 특징되는(Sample-Specific) 특성으로 인해 전체 대학생으로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학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별 학과 특성을 적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H. R. Lee, Among the users of the Student Counseling Center, interpersonal problems are the most common [Internet]. The UOS Times, [cited 2009 aug 31], Available From: <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6205> (accessed June, 8, 2023)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Youth Counseling Support Status [Interne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cited 2022 aug 16], Available From: <https://www.data.go.kr/data/15048898/fileData.do> (accessed June, 8, 2023)
- [3]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USA, pp. 268-420, 1963.
- [4] I. J. Jin,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overt Narcissism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Mediated Effect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 pp. 237-250, Jan.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237>
- [5] Ministry of Education, Concerns about college students' careers and employment,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are working together! [Internet]. Ministry of Education, [cited 2017 May 25], Available From: <https://if-blog.tistory.com/6970> (accessed June, 8, 2023)
- [6] Ministry of Education, Career concerns of young people,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be with you! [Internet]. Ministry of Education, [cited 2020 Feb. 3], Available From: <https://if-blog.tistory.com/9881> (accessed June, 8, 2023)
- [7] Ministry of Education, How did the mental health support for college students work after COVID-19? [Internet]. Ministry of Education, [cited 2022 Mar. 25], Available From: <https://if-blog.tistory.com/13134> (accessed June, 8, 2023)
- [8] C. A. Colarusso, "Child and adult development: A psychoanalytic introduction for clinician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Berlin, pp. 121-132, 1992.
- [9] S. M. Kwon, "Personality psychology for understanding human beings", HAKJISA, Seoul, pp. 415-427, 2017.
- [10] Y. J. Cho, "Effects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Interpersonal Affec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Adults: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33 no. 4, pp. 1671-1694, Sep. 2021.
- [11] R. M. Ryan, E. L. Deci,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USA, pp. 3-33, 2002.
- [12] K. A. Lee., H. H. Chung, "Effects of stress, self-esteem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Korean J Couns Psychother, vol. 11, no. 2, pp. 213-226, 1999.
- [13] J. Y. Kim, T. H. Sung, J. H. Kim, M. Y. Shin, "The Moderating Effect of Attentional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 14, no. 1, pp. 21-37, Apr. 2014.
- [14] J. M. Gottman, G. Mettetal, "Speculations about social and affective development: Friendship and acquaintanceship through adolescence. J. M. Gottman & J. G. Parker (Eds.)", Conversations of friends: Speculations on affective development, UK, pp. 192-237, 1986.
- [15] S. B. Yoon,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types and antecedents of experienced emotions on emotion regulation,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1999.
- [16] J. O. L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the emotional clarity,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p. 24-25, 2003.
- [17] S. Feldman, G. Downey,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6, no. 1, pp. 231-247, Oct. 1994. DOI: <http://dx.doi.org/10.1017/S0954579400005976>
- [18] J. A. Christman, Examining the Interplay of Rejection Sensitivity, Self-Compassion, and Communic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pp. 2-5, 2012.
- [19] G. Downey, S. Feldman, O. Ayduk,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vol. 7, no. 1, pp. 45-61, Mar. 2000.

- DOI: <https://doi.org/10.1111/j.1475-6811.2000.tb00003.x>
- [20] G. Downey, S. I. Feldman,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6, pp. 1327-1343, Jun.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327>
- [21] E. A. Impett, S. L. Gable, L. A. Peplau,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9, no. 3, pp. 327-344, Jan. 200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9.3.327>
- [22] J. H. Jung, N. W. Chung,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Lonelines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3, no. 2, pp. 339-360, Oct. 2015.
DOI: <https://doi.org/10.35151/kyci.2015.23.2.016>
- [23] A. S. Masten,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6, no. 3, pp. 227-238, Mar. 2001.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27>
- [24] L. M. Horowitz, S. E. Rosenberg, B. A. Baer, G. Ureño, V. S. Villaseñor,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6, no. 6, pp.885-892, Apr.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2-006X.56.6.885>
- [25] S. H. Hong, Y. R. Cho, J. H. Kwon, E. Y. Park, Y. H. Kim, Y. K. Jin,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KIIP-SC)",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1, no. 4, pp. 923-940, Nov. 2002.
- [26] B. D. Lee, Adult attachment and 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ttribution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p. 86, 2000.
- [27] J. E. Shin, M. J. Jeong, S. H. Lee, "A Study on Response Trends in responding rating questions", *Statistical research*, vol. 13, no. 1, pp. 48-65, Mar. 2008.
- [28] K. L. Nylund, T. Asparouhov, B. O. Muthén,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14, no. 4, pp. 535-569, Dec. 2007.
DOI: <https://doi.org/10.1080/10705510701575396>
- [29] U. K. No, S. Jung, S. H. Hong,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delinquenc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determina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5, no. 4, pp. 211-240, Nov. 2014.
DOI: <https://doi.org/10.14816/sky.2014.25.4.211>
- [30] S. K. Hong,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guideline efficacy and related variabl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of Aju University, Suwon, Korea, pp. 62-67, 2013.
- [31] S. H. Kim,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Assertiveness Training Approaches According to Nonassertiveness Causes on Assertiveness", *Student Life Research*, vol. 24, no. 1, pp. 13-91, 1991.
- [32] J. P. Galassi, J. S. DeLo, M. D. Galassi, S. Bastien, "The college self-expression scale: A measure of assertiveness", *Behavior Therapy*, vol. 5, no. 2, pp. 165-171, Mar. 1974.
DOI: [https://doi.org/10.1016/S0005-7894\(74\)80131-0](https://doi.org/10.1016/S0005-7894(74)80131-0)
- [33] M. O. Yu, "Effects of Grit and Personality Type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5, pp. 364-372, May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5.364>
- [34] M. R. Lee, H. S. Jeon, "Comparison of ego-resilience and degree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enneagram personality type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Conference*, vol. 2015, no. 12, pp. 100, Dec. 2015.

임애련(Ae-Ryon Lim)

[정회원]



- 2002년 8월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학박사)
- 2013년 ~ 2018년 3월 : 신한대학교 겸임교수
- 2018년 4월 ~ 2019년 2월 :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부교수

<관심분야>

발달심리, 예술심리